

충북도, 전방위 보육서비스 개시

■ 경력단절 청년특화 영유아돌봄서비스, 올해 첫 시행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일환... 56명·국비 2.5억원 확보

행안부 공모사업 통한 경력단절 여성·영유아 돌봄서비스까지

충북도는 2019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일환인 '경력단절 청년특화 영유아돌봄서비스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경 개선 및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에 따른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기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현

내 어린이집에서 보육도우미, 사무보조, 청소 및 조리 보조 등의 임무를 맡게 되며 하루 4시간 동안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기존에 정부지원 보조교사 및 아이행복도우미를 지원받지 않은 도내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지원하고,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 컨설팅, 사업홍보 등을 통해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집에서는 인건비 10% 이상을 부담하고 4대보험료를 지원 받게 되며

사업홍보, 지원시설 선정, 직원채용 공고를 거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도 관계자는 "금년에 첫 시행한 국비 매칭사업인 청년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전역 도비로 추진되고 있는 아이행복도우미 사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력단절 청년특화 영유아돌봄서비스 사업은 총사업비 6억7600만원 중 국비가 37%를 차지해 지방비 예산절감 및 경력단절 청년일자리 창출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2일 고교무상급식 현장확인차 청주고등학교를 방문한 김병우 교육감,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가 급식 메뉴를 살펴보고 있다.

고교무상급식 첫 시행, 현장 방문 격려

이장섭 충북 정무부지사, 도교육감·청주부시장과 청주고 방문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금년 고교무상급식 첫 시행에 따라 12일 도교육감, 청주부시장과 함께 청주고등학교를 방문, 급식관계자를 격려하고 학생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고교 무상급식은 금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충북도와 시군은 금년 고교무상급식 식품비 230억원의 75.7%인 174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10일 충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이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와 미래인재육성' 합의에 따른 것으로, 무상급식 식품비 총액에 대해서는 충북도(시군포함)가

75.7%, 도교육청이 24.3%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인건비·운영비·시설비는 도교육청이 전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충북 미래인재육성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과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미래형 학교모델 창출을, 충북도는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장섭 정무부지사는 "무상급식을 통해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학생들도 학업에만 전념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로 성장해 나

충북도, 올해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

877억원 투입할 '청년정책 시행계획' 확정

충북도는 올해 청년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기 위한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1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청년위원회를 열고 5대 전략, 77개 단위사업에 877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청년 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5대 전략은 청년과 소통하는 열린 청년 정책, 청년 능력개발 및 청년 활동 지원, 맞춤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청년 창업 육성 및 환경 조성, 청년의 행복가족 형성 지원 등이다.

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광장 구성·운영, 청년종합정보 사이트 '충북 청년포털' 운영 등을 추진한다.

또 충북청년희망센터를 조성·운영하고 청년 연구자 역량 강화 지원 및 지역인재 채용 설명회를 추진한다.

도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해 특성화 고교생·대학생들의 취업역

량 교육을 확대하고 글로벌 현장학습을 지원하며 일·경연 일자리를 추진한다. 청년창업 육성을 위해 충북도는 창업 배이스캠프를 운영하고 창업 선도대학을 지원하며 농촌 창업 청년 농업인 정착을 돕기로 했다. 이외에도 청년들이 행복할 가족을 꾸릴 수 있도록 행복결혼공제 확대, 출산 양육지원금 지급, 행복주택 건립 사업이 추진된다. 한창섭 행정부지사는 "청년 중심의 젊은 충북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8일 청주 청소년광장에서 열린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충북대회'에서 충북여성연대 회원 등이 '미투 성평등을 말하라'란 주제의 개회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충북여성연대, 3·8 세계여성의 날 충북대회

"성평등한 세상 꿈꾸며 희망을 현실로 바꿀 것"

충북여성연대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7일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 위치한 청소년광장에 모여 '음기의 언어, 미투 성평등을 말한다'를 주제로 3·8 세계여성의 날 충북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여성연대의 플래시몹과 난타공연, 재즈밴드 리얼라이즈의 사정행사를 시작으로 개회선언과 함께 성평등 다짐문서 시상과 성평등 결집문을 발표했다.

성평등 다짐문서는 스크리머 꺼지지 않는 불꽃을 비롯해 3명이 받았으며, 성평등 결집문에는 B면 이장섭과 청주지

방검찰청 영동지청 8모 검사가 지목됐다. 여성연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성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진정한 삶의 주체로서 절망의 시대에 변화를 위한 희망을 말하려 한다"며 "희망이 현실이 되기 위한 행동으로 우리나라에 공명을 일으킬 것이고 그 공명은 결국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어 "여성들은 연대할 것이고 미투의 경험은 새로운 사회의 기준이 될 것이며 민주주의를 완성할 것"이라며 "변화는 이미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날 모인 여성연대 회원들은 대동불이와 거리행진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불타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미국 노동자들이 끝기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 1975년부터 매년 3월 8일 UN에 의해 공식 지정됐다.

충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조 9,649억원 편성

기정예산 4조5,789억원 대비 3,860억원(8.43%) 증가

충북도는 최근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보다 앞당겨 편성하고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였다. 충청북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조 9,64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60억원(8.43%)을 증액한 규모이다.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에 의한 증가분(1,531억원), 지방교부세(1,255억원) 및 국비보조금 증가분(569억원)과 세외수입(138억원) 등이 다.

세출예산은 충북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산업육성 및 도민의 생활안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주요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36억원), 지역공동체 활

성화 기반구축(10억원), 청년 일자리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보다 앞당겨 편성하고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였다. 충청북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조 9,64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60억원(8.43%)을 증액한 규모이다.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에 의한 증가분(1,531억원), 지방교부세(1,255억원) 및 국비보조금 증가분(569억원)과 세외수입(138억원) 등이 다. 세출예산은 충북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산업육성 및 도민의 생활안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주요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36억원), 지역공동체 활



청주웰치과

CHEONGJU WELL DENTAL CLINIC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약 지정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치과교정과 어린이치과

치과보존과 치과보철과

- 보힘임플란트(65세 이상) 전문 치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26(북대동) 마이크로병원 B/D 3층 T. 043-278-8100 F. 043-278-8006

옥천군 청년 전월세 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호평'

도내 최초 시행... 27명 2천178만원 지원

옥천군이 도내 최초로 시행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관내 전입까지 유도하며 특별한 효과를 누리고 있다. 7일 군은 청년 전(월)세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이 관내 청년들의 호응 속에 총 27명에게 2천178만여원의 전(월)세대출금 이자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옥천군이 올해 도내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중 전 용면적 85㎡ 이하 주택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자가 그 대상

이다. 이들에게는 한해 100만원(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명당 0.5%씩 가산, 최대 15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금 잔액의 2%가 이자 명목으로 지원된다. 군은 민선 7기 김재종 군수의 청년복지 공약 중 하나인 이 사업 시행을 위해 올해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사업 효과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 등의 체감도를 높여줘 실직적인 혜택으로 이어졌다. 이들에게는 각각 개인별 대출금 잔액과 자녀수에 따라 최대 26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됐다.

옥천읍 금구리 최모(28·여)씨는 "이 사업으로 70여만원을 지원받아 앞으로 매달 내야하는 대출금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그 동안 군에서 추진한 청년 정책 중 이 사업이야말로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것 같다"고 말했다. 높은 수는 아니지만 실제로 3가구 7명의 관내 전입도 있었다. 대전에 거주하다 얼마 전 옥천읍 양수리로 전입한 김모(35)씨는 "전에 거주했던 곳에서 직장 등 부담을 갖고 있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젊은이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심리적·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한 이 사업 추진을 앞으로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업수혜자 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67%인 18명이 이번 군의 지원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체의 67%인 18명이 지원금(대출금 잔액의 2%)이 부족한 면이 있다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평균 이자인 2.7% 수준까지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제수 기획감사실장은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젊은이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심리적·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한 이 사업 추진을 앞으로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동군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완공돼 군수, 군의원 등 관계자들이 개소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영동군 행복 노후 보장... '치매안심센터' 개소

체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치매안심팀' 신설해 고령화 대응

영동군이 종합적인 치매통합 서비스로 군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만들기에 나선다. 6일 군에 따르면 '치매'가 있어도 안심되는 영동이라는 구호 아래 영동군보건소 3층에 치매안심센터가 정식 개소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진정한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고 군민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영동군의 강한 의

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영동군의 지난 2월 기준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29%인 14,387명이며, 갈수록 고령화 심화 추세를 감안하며 치매인구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군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치매안심센터를 차리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로 지역의 새로운 활력과 웃음을 찾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보다 체계적인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거쳐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치매안심팀'을 신설했다. 이에 앞서 군은 2017년 12월부터 사업계획 협의, 구조안정진단, 건축 실시설계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2018년 6월 10억2천여만원의 사업비로 보건소 3층에 488㎡ 규모로 증축 공사를

진행해 지난 2월 인테리어 작업까지 최종 완료했다. 이 곳은 조기검진실, 교육상담실, 프로그램실, 쉼터, 가족카페 등 방문노인들의 마음의 부담을 덜어줄 안락하고 편안한 검진·치료 환경을 갖췄다.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등 전담인력 7명이 상주하며, 군민들의 건강한 노후를 살리기 위해 된다. 이로써 치매관련 상담·등록관리부터 1:1 사례관리, 치매인식개선 교육·홍보, 치매환자 쉼터 운영, 가족카페,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 건강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군은 치매안심센터 개소로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기반을 확실히 다진다는 구상이다. 박인순 보건소장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는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다"라며, "군민의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정식 개소한 만큼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1,378명의 치매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다.

영동군, 행복나눔 '한마음 이동 자원봉사' 본격화

영동군의 마을을 직접 찾아가 펼치는 종합 봉사활동 프로그램인 '한마음 이동 자원봉사'가 7일 양산면 봉곡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프로그램은 영동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순만) 주관으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며 자원봉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에는 영미회봉사단·감나무봉사단·다사랑봉사단·참가정봉사단·고운손봉사단·어울림봉사단·보현회봉사단·유원대학교 치위생학과·한국전기안전공사영동옥천지사·한국가스기술공사영동분소 등 지역의 12개 이상의 민간 및 기관 봉사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미용, 집수리, 손관리 마사지, 관절염예방전기마사지, 칼같이, 할압 및 할당 체크,

이동 빨래차, 가족·영정사진 찍어주기, 틀니·안경세척, 가스·전기 안전 점검 및 노후설비 교체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주민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는 마을 잔치나 마차가자다. 마을주민과 자원봉사자 모두가 함께 어울려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소통과 건강의 기반이래 행복한 웃음을 나눈다.

보은군, 자녀양육 부담 덜어준다... 보육지원사업

보육분야에 48억2천여만원 예산투입

보은군은 올해 영유아 보육분야에 48억2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군은 올해 보육분야의 초점을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열악한 재정 부담 완화' 등에 맞추고 이에 따른 총 28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가정어린이

집에 취사부인건비 4천여만원을 지원하고, 모든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로 1백여만원씩을 지원한 방침이다. 또한, 특별활동 강사 지원비로 2천9백여만원, 어린이집 간식비로 9천여만원,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6천여만원의 추가 보육료를 지원해 어린이집의 운영 활성화는 물론 학부모의 어린이집 이용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이외에도 군은 우수한 어린이

집으로 선정된 공공어린이집에는 6천여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어린이집의 지속관리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농촌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근무수당과 보육교직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3억4천여만원이 보육교직원 수당으로 지급되며, 특히 평가인수 어린이집에 12억8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보조교사 인건비 및 올해 신규사업인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증평군, 우울증 환자 돌봄 '두드림케어' 사업 운영

증평군보건소(소장 염영미)와 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도정수)가 '두드림케어'사업을 통해 우울증 환자 돌봄에 나섰다. 보건소는 매일 2회씩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센터 등록 대상자의 집을 찾아가 멘탈다터(EMDR)기기를 활용해 우울증 완화, 불안감소, 불면완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유비오메파를 활용해 스트레스와 혈관건강 측정 서비스와 우울 감소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 영양제, 과일즙 등을 지원한다. 정신과 치료에 경제적 부담을 겪는 대상자에게는 약제비 2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우울 고위험군의 자살사고 관련 입원비를 1인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우울장애가 있는 증평군민은 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염영미 증평군보건소장은 "이번 두드림케어 사업을 통해 우울감을 낮추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군 취약계층 발굴... 복지 사각지대 막는다

내달 19일까지 차상위장애인가정 443가구 대상

옥천군은 1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6주간 군에 거주하는 차상위장애인가정 443가구를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가구원의 장애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장애인가구

의 생활실태와 복지요구를 파악해 위기상황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대상자별 복지서비스 탐색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함이다. 지역내 9개 읍면에서 함께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읍면 사회복

지공무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결과와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어려움을 구기

울여 듣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민관협력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은 지난해 장애아 동가구, 상하수도요금 체납가구, 관리비 체납가구 등 일제조사를 통해 437가구를 지원했다.

괴산군 보건소, 치매환자·가족 프로그램 연중 운영

재활·가족모임 프로그램

괴산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걱정 없는 괴산 실현'을 위해 경도인지장애인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환자쉼터 및 가족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경도치매환자를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치매가족을 위한 자조모임, 치매가족교실 등이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인지재활 프로그램인 '기억지킴이 쉼터' 입학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기억지킴이 쉼터'는 경중치매환자를 대



괴산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지난 7월 인지재활 프로그램인 '기억지킴이 쉼터' 입학식을 하고 있다.

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증상 악화를 방지해 치매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주 1회(3시간) 운영되는 '기억지킴이 쉼터'는 전문적 인지재활 프로그램(전문강사를 통한 직접서비스)이 제공되는 사업으로, 13주간의 일정으로 오는 5월 말까지 계속된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X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X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X138mm)	흑백	150,000
8면	4단 (360mmX138mm)	컬러	200,000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솔지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모두가 행복한 '포용 복지' 실현된다

생계·병원비 지원·일자리 확충 등 '스마트복지' 구축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수당 지급 등 육아 부담도 ↓

보건복지부는 올해 생계비·병원비·일자리 걱정 감소, 국가의 돌봄 책임 강화, 국민의 건강한 삶 지원, 스마트복지 실현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생계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75세 이상 노인인 장애인의 근로소득에서는 20만원을 추가 공제해 기초생활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자활단가 인센티브(26.6%)를, 자활장려금 도입(소득공제 30%) 등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희망직몰방장의 연령 기준을

확대(34~39세)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5만 병상) 등을 통해 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회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도 확대(827~927명)한다.

보건복지 일자리는 늘어난다. 보육·돌봄·여가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9만5000명 늘리고 2022년까지 34만명을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방문건강관리와 의료 질·안전 제고, 바이오 헬스산업 육성 분야에서도 올해

1만9000개를 늘린다.

아동의 양육·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약 270만명)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금액 인상(50만~60만원), 만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 인하(본인부담 21~42%→5~20%)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복지부는 공공립 어린이집을 연간 550개소 이상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당초 계획했던 2022년이 아닌 2021년에 달성하기로 했다. 4월부터 보호종로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지원수당을 새로 지원하고, 아동권리 보장원을 오는 7월 설립해 체계적으로 아동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 10만개 추가로 만들고, 치

매안심센터 운영 고도화, 치매전문병동·치매전담형요양시설 확충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해 올해 2500명에게 지원하고,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에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에 따라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살던 곳에서 돌봄·요양·의료 등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실시한다. 건강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기준 대상에 포함한다.

복지부는 올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도 시작한다. 복지 화원제(가칭) 시스템은 복지 수요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주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교통약자 콜택시' 220대 확충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올해 '교통약자 콜택시' 220대를 추가로 보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 규모를 작년 30억원에서 60% 증가된 47억원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220대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일반 승합차에서 휠체어 고정장치와 안전띠 등 개조비용 4200만원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며 서울은 국가 40%, 서울시가 60%를 부담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82억원을 투입해 교통약자 탑승 가능 차량 1432대를 공급했



다. 국토부는 최근 교통약자 탑승 차량에 설치하는 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객 안전띠 등의 안전기준도 신설해 올해 제작 차량부터 적용한다. 특별교통수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관리자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운행 매뉴얼'도 이달 말 전국 지자체에 배

포한다. 아울러 전용 앱(App)을 통해 차량 신청, 배차 등 편리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연구개발(R&D)과 시험운영(전북)을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시설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수당, 9월부터 만7세미만까지 확대

올해부터 소득·재산 조건 무관... 월 247만명 혜택 예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종합 아동복지정책' 5월 발표

정부가 아동수당을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 노원구 복지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우선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

요예산은 재정 당국과 협의의 중이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아동수당은 그동안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했으나,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당초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에만 지원했으나 올해 1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월평균 247만명이 아동수

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과 더불어 보육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는 등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21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에서 12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시범사업 등을 통해 보육 지원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아동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종합적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학교나 지역사회 중

심의 건강교육, 구강 진료와 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의 기초건강을 증진하고 영유아의 고위험 건강검사와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소아·청소년 빈만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정서·불안장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문제를 겪는 아동을 위해 진단과 조기선별, 심리상담과 치료연계 등의 지원도 확대한다. 또 소아 당뇨 등 만성질환 아동 대상 상담·보호 체계 구축에도 소아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아동 대상 의료비 지원, 호스피스·재택의료·학교복지지원 등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번 추진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한 뒤 오는 5월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상승

세종 88.9% '최고'·충북 70.8% '최저'... 지역 격차는 여전히

장애인 주차구역과 승강기 등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편의시설이 많아지고 있지만,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집중되고 충북, 전남 등 지방은 상대적으로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출소와 우체국, 보건소 등 공공시설은 민간시설보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지난해 5

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전국 18만5947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5년마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1998년 이후 신축이나 증축을 한 공원, 공공건물과 공공이용시설, 공동주택으로 장애인 주차구역과 승강기, 화장실 등 23종의 편의시설이 있

는지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로 직전 조사연도인 2013년(67.9%)보다 12.3%포인트 높았다.

또 설치된 편의시설의 질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정설치율(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비율)은 74.8%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이 모두 늘었지만,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있다. 도시지역이 많은 광역시 등 자치단체의 설치율이 높았지만, 또 단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또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농어촌 지역과 노후 건

축율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설치를 기준 상위 5개 지역을 보면 세종이 88.9%로 가장 높고 서울 87.9%, 울산 85.1%, 광주 82.2%, 경기 8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이 70.8%로 가장 낮았고, 전남 73.2%, 경북 74.5%, 전북 77.2%, 경남 77.4% 등의 순으로 저조했다.

또 공공시설이 민간시설보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율은 공공과 민간 모두 80.2%로 같았지만, 적정설치율은 공공부문 72.4%, 민간부문 75%보다 2.6%포인트 낮았다.

저소득층 교육급여 이제 '최저교육비 수준'

초등학생 교재비 11만6천원→20만3천원 등 인상

반쪽자리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저소득 가정 지원받는 교육급여가 올해부터 완전하게 적정 수준에 맞춰진다.

교육부는 4~22일 '교육급여 및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과서비·부교재비·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다.

초·중·고교생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급식비·방과후학교 수강비·인터넷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구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소득 인정액 230만원) 이하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같이 지원받

는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시·도 교육청별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는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정부가 책정한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에 맞춰졌다.

최저교육비란 평균적인 교육을 위해 지출하게 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초등학생을 둔 저소득 가정은 올해 20만3000원(부교재비 13만2000원·학용품비 7만1000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11만6000원(부교재비 6만6000원·학용품비 5만원)에 불과했다. 중·고등학생을 둔 저소득 가정은 올해 29만원(부교재비 20만9000원·학용품비 8만1000원)을 받는다. 지난해는 16만2000원(부교재비 10만5000원·학용

품비 5만7000원)이었다.

교육비는 예년처럼 교학비(연 170만원)와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PC 설치비(연 120만원),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시·도 교육청별로 다르며, 교육비 지원을 확대한 교육청도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 교육비 홈페이지(oneclick.moe.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원받는 형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자녀가 있으면 새로 신청해야 한다. 문의 사항은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문의하면 된다.

다음달부터 중증장애인에 연금 30만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으로 30만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와 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월 30만원으로 정해졌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하는 것에 맞춰서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조정한 것이다. 그 밖의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은 월 25만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월 25만3750원으로 오른다.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2만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95만원이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과 생활수준, 불가 상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종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봉사단 위촉 기준

1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 봉사활동 분야

구분	내용
기술·기능	디자인, 석화봉사, 전기·가스점검, 집수리, 도매, 기능선수 등
상담·정보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청소년 등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운영·지원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대상·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봉사 등
문화·예술	음악, 연극, 무용진행 등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육·학습	나눔·경제교육,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등 학습지도
노력·행정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노력봉사, 청소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의료	무로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업무보조 등
교통·환경	교통정리, 차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재활용품 및 환경관련 캠페인 봉사 등

4. 봉사단 혜택

- 1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중복지원 불가, 충북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참석)
- 1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 1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넷)
- 1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5. 신청 및 문의

1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김민지 코디네이터

전화 043) 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해피하우스 후원 전달식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후원 업체 ㈜우영스톤
열악 소외계층 14곳에
3600만원 상당 금액 후원
맞춤형 주방 가구 교체



14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는 ㈜우영스톤과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후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센터장 이화정)는 14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후원업체인 ㈜우영스톤(대표 정현군)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해피하우스에 선정된 14개소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 전달식을 진행 하였다. ㈜우영스톤 대표는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는 가정에서의 공간은 무엇보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밝힌 뒤 "주방 개선사업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소외계층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썩크대와 식탁, 가스렌지를 교체 해 주는 주거환경개선 사업(3,600만원 상당 금액)을 후원해 주길 소망을 전했다. 사회공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신

청을 통해 환경이 열악한 시설 및 장애인 가구중 선정된 14개소를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맞춤형 주방 가구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소외

계층에게 주거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기업 사회공헌활동을 독려하여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의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 난치성질환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4월 11일까지 신청 접수 받아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센터장 이순희)는 도내 장애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선택·편리한 사용을 위해 맞춤형 보조공학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조공학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 희귀질환아동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월드비전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주관하는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외에 9개의 광역 보조기기센터에서 협력 수행한다.

사업 목적은 저소득 희귀질환 아동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무료보급함으로써 저소득 희귀질환 아동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보호자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지원받은 보조기기를 활용해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있다.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23세 이하의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 받은 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019년 기준 중

위소득 80% 미만인 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품목은 1인당 250만원 미만의 개인별 적합 맞춤형 보조기기를 이동, 학습, 일상생활, 사회참여 등 영역의 제한과 개수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1차 11일부터 ~ 4월 11일 / 2차 6월 24일 ~ 7월 25일이며, 자세한 보조기기 지원 품목 정보, 신청 방법 내내는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www.cbata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 043-265-0401)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민이 생각하는 '우리사회 성평등' 인식

'평등하다' 45.7% · '여성불평등' 47.9%로 차이 크게 없어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센터장 이화정)는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충북도민 317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인식 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 목적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충북도민의 성평등 인식 인식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우리사회가 평등한 사회인지 묻는 질문에는 여성 불평등이

라는 답변이 152명(47.9), 남녀평등한 편 145명(45.7)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은 19%, 여성은 65.8%, 여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연령대로 보면 30대가 59.0%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20대는 3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회의 성평등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임금(16.7), 일자리(15.8),

성희롱(13.2)에 관해서는 여성이 대대로 불평등하다고 나타났으나 가족 내 교육관계(18.0), 학 교생활(18.2), 가족관계(15.1) 관련해서는 남녀평등한 편이라고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이 주로 발생하는 곳에 대한 질문에 사회생활 안에서가 209명(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조사결과는 임금(21.3), 일터에서(14.4), 대중매체(14.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추진할 성평등 정책 우선

순위 질문에 일·가정 양립정책(38.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평등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요한 사항 묻는 질문에는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활동(31.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이화정 센터장은 "OECD 주요 회원국 성별 임금격차 평균 14.1%에서 한국은 36.7%로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시행한 이번 조사가 성평등 정책에 대한추진전략 근거자료로 활용되어 남녀 평등한 사회가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가경노인복지관은 연중 진행하고 있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9988행복지킴이 · 환경지킴이 · 초록자연학교 사업단 등

청주가경노인복지관(관장 정은경)은 2월 21일 청주가경노인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2019년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청주가경노인복지관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노인을 지원하여 상시 돌보는 9988행복지

킴이(연중) 사업단, '환경지킴이 사업단', '초록자연학교 사업단', '그린누리 사업단' 어르신 170여 명이 자리에 참석하여 올해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청주시 지역사회봉사 지도원등 수여, 선서 및 관리를 하는 그린누리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본 발대식에서는 '9988행복지

킴이(연중) 사업단, '환경지킴이 사업단', '초록자연학교 사업단', '그린누리 사업단' 어르신 170여 명이 자리에 참석하여 올해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청주시 지역사회봉사 지도원등 수여, 선서 및 관리를 하는 그린누리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본 발대식에서는 '9988행복지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연극으로 역사 엮는다' 주제 응모... 충북 유일 선정 쾌거

제천청소년문화의집이 2019년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활동분야 기획프로그램에 응모해 충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며 여성가족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 이번 공모사업은 청소년단체의

역량강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참여 활성화와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제천청소년문화의집은 역사 참여활동을 통해 의식개선과 사회 참여형 청소년 민주시민으로서

이 프로그램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소년들이 직접 사업을 기획했다는 점이다.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봉사동아리)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공모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했다. 청소년참여기구나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제천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www.jcyouth.kr)를 참고하거나 전화(043-652-0055)로 문의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소년들이 직접 사업을 기획했다는 점이다.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봉사동아리)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공모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했다. 청소년참여기구나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제천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www.jcyouth.kr)를 참고하거나 전화(043-652-0055)로 문의하면 된다.

용암종합사회복지관, 2019 꿈날개 장학금 지원

청소년 10명에 백만원 전달

월드비전 용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신재권)은 2월 22일 대학에 진학하는 고3 졸업생 청소년 10명에게 총 500만원의 월드비전 꿈날개 장학금을 전달했다. 월드비전 꿈날개 장학금은 자신의 재능과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월드비전은 매년 꿈을 위해 대학에 진학하는 고3 졸업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배우가 꿈인 A군(20세)은 전라도 지역의 대학교 방송연예과에 입학하게 됐다. A군은 "후원자님의 도움 덕분에 제가 올바른 길로 가는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며 "꿈을 이뤄서 저처럼 어려운 아이들에게 힘이



용암종합사회복지관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고3 졸업생 청소년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되어주고 싶습니다"고 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꿈인 B군(20세)은 충청도 지역의 대학교 디자인과에 입학하게 됐다. B군은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 걱정됐지만 후원자님이 이렇게 뒤에서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커다란 격려가 됐고, 이 길을 나아가는데 있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월드비전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신재권 관장은 "나도 어린 시절에 가졌던 꿈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에 영향을 준 것을 느낀다. 여러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과 관련된 학과에 입학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꿈을 향한 발걸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대학이라는 세상에 처음 내딛는 그 순간을 월드비전이 함께 응원한다"고 말했다.

청주 주거복지학교 '관심 집중'

청주복지재단 · 청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주관

'주거복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청주 주거복지학교'가 8일 개강해 큰 호응을 얻었다. 청주복지재단과 청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주관한 이날 '청주 주거복지학교'에는 청

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최종진 · 이재숙 위원과 유용모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해 복지기관 · 시설 관계자 60여명이 교육장을 가득 매워 최근 높아지는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청주 주거복지학교'의 첫 수업은 문영록 서울시주거복지중앙센터장이 맡아 왜 주거복지인가?, 주거복지프로그램 청주의 주거복지센터 어떻게 만들 것인가 등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 후에는 청주시의 주거문제, 청주시의 주거 관련 정책과 지원, 청주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도 벌어졌다.

'청주 주거복지학교'의 두번째 일정은 21일 이주원 국토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초청해 중앙과 지방의 주거복지정책 등을 주제로 꾸며졌다. '청주 주거복지학교'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청주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청주복지재단이나 청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신청하면 된다.

돌봄종사자 인식개선 및 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돌봄종사자 건강권 지원사업

사업내용

- 1. 돌봄종사자의 신체적·심리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집단상담, 미술치료, 웃음치료, 안전교육, 의사소통교육, 호스피스교육, 소모임 지원 및 개발
- 2. 사회인식개선을 통한 건강권지원
좋은 돌봄의 중요한 요소인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하기 위하여 돌봄종사자를 위한 사회적 관심을 도모
- 3.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권익옹호
돌봄 인력의 사회권에 대한 입체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돌봄종사자의 권익향상을 도모

사업기간 18년 9월~ 19년 8월

충북도내 돌봄종사자(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건강권 증진과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건강·교육·인식개선·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합니다.



서울·대구·경기·경남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며, 올해 3월부터 4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2022년까지 국·공립 시설 170개소, 종합재가센터 70개소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인력 1만 1000명 고용 목표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주요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 * 복지부 법인 설립허가: 서울·대구(2.27일), 경남(4월 예정), 경기(9월 예정)

- 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한다.
- 사회서비스원은 새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을 우선 위탁 받으며, 특히 서비스 수요가 많은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공립 요양시설은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이밖에 위·불법이 발생하거나 평가 결과가 저조한 국·공립 시설, 시·군·구청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국·공립 시설 등을 운영한다.
- * 신규 국·공립 시설 설치계획(∼'22): 보육(510개소), 요양(치매전담 344개소) 등
- * 사회서비스원 운영시설 명칭 예시: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북구 00 어린이집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

- ◆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서비스 유형 및 운영시설의 종류는 시·도지사가 지역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다만, 서비스 수요가 많고 공공성 향상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은 '보육, 요양' 분야는 필수 제공

②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케어) 체계의 하나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종합재가센터에서는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각종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한다.

- * '19년 4개 시·도에서 10개소 설치→'22년 17개 시·도에서 135개소까지 설치 확대
- 이를 통해 이용자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고, 서비스 제공인력은 적정 업무량을 확보하고 고령적으로 월급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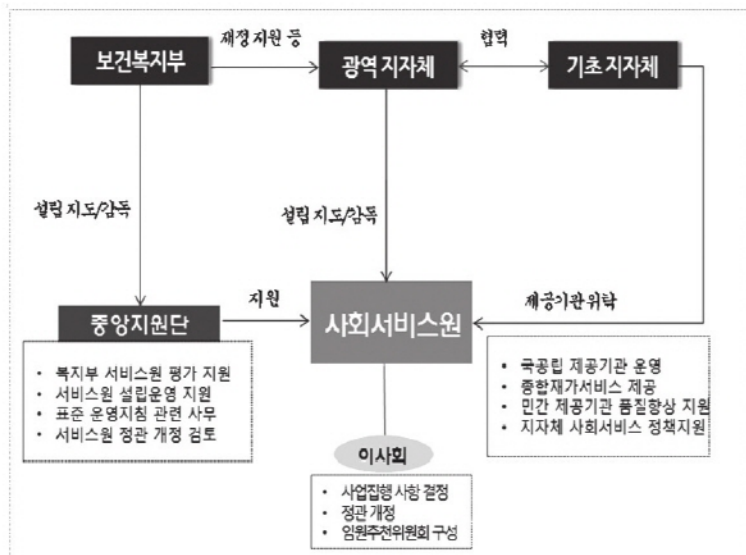
(현행) 단일 서비스, 단시간, 시급제 → (개선) 통합서비스, 기본근무시간 보장, 월급제



③ 그 밖에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향상을 위해 회계·노무·법률 등에 대한 상담·자문, 대체인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등도 수행한다.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대상지역 선정, 관련 법·제도 개선, 재정지원, 시범사업 관리 및 평가 등
- 중앙지원단: 서비스원 설립 지원, 운영지침 마련, 평가업무 지원 등
- *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복지부가 설립·운영하는 기구로 공모 통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위탁('19.2~)
- 광역 지자체: 서비스원 설립, 시범사업 운영 및 제원확보, 사업범위 및 규모 확정, 품질향상 및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등
- 기초 지자체: 국·공립 시설 수탁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 등



1. 서울특별시

재가서비스 품질향상과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19년에 '종합재가센터' 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2022년에는 전체 25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국·공립 시설 5개소('22년 20개소), 종합재가센터 4개소 운영('22년 25개소) 2022년까지 관할 기초자치단체(25개소)에 종합재가센터를 모두 설치하여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품질향상 및 제공인력 처우개선 유도

2. 대구광역시

대구시는 시립 복지시설인 희망원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인권보장 강화와 함께 생활인의 자립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 * 대구광역시립희망원: 노숙인 요양시설 + 노숙인 재활시설 + 정신요양시설로 구성, 생활인 정원 995명, 종사자 정원 163명
- * 생활인 대다수가 지적, 뇌병변, 정신, 지적, 신체 등의 장애 보유
-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희망원 내 탈(脫)시설 전담팀을 구성하여, 장애인, 노숙인 등이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자립지원 사업*을 연계·제공할 계획이다.
- * 대구시 자립지원 대책: 긴급주거비, 자립정착금, 중점사례관리 등
- 국·공립 시설 9개소('22년 28개소), 종합재가센터 2개소 운영('22년 8개소) 대구시립희망원을 운영하고 기관 내 탈시설 전담팀을 구성하여 생활인들의 자립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3. 경기도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종합상담센터 등 다양한 공공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제공기관 설치·운영 사업을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추진 인권보호 및 확대예방 등, 노인일자리 지원, 우울, 자살, 치매 상담 등 분절적으로 설치된 공공센터 간의 연계·운영과 민간위탁 사업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선도적 모형을 될 것으로 보인다.

- 국·공립 시설 10개소('22년 97개소), 종합재가센터 2개소 운영('22년 29개소) 다양한 공공센터*를 수탁하여 연계·운영하고 민간위탁 사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성 제고
-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종합상담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

4. 경상남도

'종합재가센터'와 '커뮤니케어센터'를 통합·운영하여, 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이용자에게 대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계획 등 수립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국·공립 시설 7개소('22년 25개소), 종합재가센터 2개소 운영('22년 8개소) '커뮤니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와 '종합재가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이용자에게 대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구분		국공립 시설 등 운영			민간시설 지원사업	
		국공립 시설	종합 재가센터	종사자 수		시설유형
서울	'19	5	4	550여명	어린이집, 요양시설(20년 이후)	① 경쟁 컨설팅
	(~'22 목표)	20	25	3,900여명		
대구	'19	9	2	470여명	어린이집, 노인시설, 노숙인시설, 장애인시설, 기타 공공센터 등	① 시설 안전점검 지원 ② 경쟁 컨설팅 ③ 대체인력지원 ④ 민간협력지원사업
	(~'22 목표)	28	8	1,500여명		
경기	'19	10	2	330여명	어린이집, 요양시설, 다문화 돌봄 기타 공공센터 등	① 시설 안전점검 지원 ② 경쟁 컨설팅 ③ 대체인력 지원 ④ 인력수급지원
	(~'22 목표)	97	29	4,300여명		
경남	'19	7	2	390여명	어린이집, 요양시설, 커뮤니티케어 센터 등	① 시설 안전점검 지원 ② 경쟁 컨설팅 ③ 대체인력 지원 ④ 교육훈련지원
	(~'22 목표)	25	8	1,500여명		
계	'19	31	10	1,740명		
	(~'22 목표)	170	70	11,200명		

- ① 제공인력: 사회서비스원에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정년 보장 및 승진기회 확대 등 질 높은 일자리 제공
- ② 이용자: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든든한 공공형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충
- ③ 제공기관: 행정업무 부담 경감 등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④ 전달체계: 민간제공 기관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상담·자문, 대체인력 지원 등)

보건복지부는 3월 중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상반기 중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법 제정을 목표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18.5.4. 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제정안(18.10.16., 윤소하 의원)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확충하여, 신속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립형 장기요양 기관 등 800여 개의 국·공립 시설과 135개소의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최대 6만3000명의 서비스 제공인력 고용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사회서비스원 추진담당장 겸임)은,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에 맞추어 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공급체계"라고 말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이 현재 분절적·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서비스 제공기관과 공공센터를 연계·운영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재가센터를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여, 노인, 장애인 등이 본인이 살던 곳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Column

사회복지사의 고단한 하루



서은선
영등포 사회복지협의회장

에서는 냉동탐차와 운전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수배령이 떨어진다.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냉동탐차와 인력을 자원봉사자와 전직원의 인력을 이용하여 수배하여 목적지로 출발시킨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최종 목적지에 들렀다가 타 지역까지도 들려 본다. 혹여나 타 지역의 푸드뱅크사업소에서 물품잉여분을 수령받을 수 있을까 하는 미련 때문이다.
영등포 도착하여 내일 배분을 위해 물건을 검수하고 배분할 수 있게 정리한다. 일과가 끝나는 시간은 오후 9시경이다. 그나마 일찍 마무리가 되는 편인 경우라도 끝나는 시간이 그렇다.
수령에 따른 서류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10시정도 퇴근한다.
푸드뱅크 전담인력의 하루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과 음식을 나눠주는 것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는 목숨을 담보로 하루 9시간의 운전과 피로의 누적뿐만 아니라 배분에 관련된 서류와 자원봉사자의 관리 등 한사람의 사회복지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아닐로 상상을 초월한다.
어느 사회복지현장의 사회복지사도 이와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얼마전 사회복지공무원이 민원인이 휘두른 칼에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호송되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직원의 능력은 슈퍼맨과 슈퍼우먼이 지리하면 어렵다.
이 땅의 사회복지가 사회복지종사자의 저임금에 누적된 피로를 뒤로하고 일과를 시작할 때를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직원의 대우수당 및 복지후생비는 세율 예산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근로와 같은 수준의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책무는 연봉 5,000만원도 부족할 정도의 일을 진행해야 되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침해나 위협들은 어떻게 보장받아야 할 것인가?
운영비 인건비를 전액 받는 시설 기관은 그나마 좋은 환경과 시설에서 자기 보직의 일만을 해내면 된다. 그러나 인건비 운영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기관은 출발선이 다른 마라톤대회를 해야 된다.
사회복지현장도 자본의 정도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현상으로 시설 기관 단체가 될 곳은 아무 곳도 없어 보인다.
정작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하며 감싸주어야 하는 사람들,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넘어서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면서 그들의 멘토가 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그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
퇴직이후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노인 일자리를 신청해서 생활하며 무료급식

소에서 한끼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학문은 진보적인데 현실에서는 퇴보하고 있는 상황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리는 행정이 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이웃을 민간자원을 발굴해내서 연결하는 행정당국임장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 앞에서는 모두가 검은 손의 극치를 보이고 조아리는 모습을 보이는 걸까?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반성이어야 한다고 본다.
누군가 칼에 찔리고 누군가 권력의 횡포에 시달림을 당고 누군가 정치의 힘에 조아리는 그 모습을 그저 관망하기만 하는 패배주의에 물들면 안 된다. 우리는 스스로의 성찰이 있어야 한다.
아니라고 하지만 누군가 칼에 찔리고 처우가 행편없이 현장을 떠났을 때 사회복지사들은 무엇을 했는가?
동료들의 쓸쓸한 뒷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 다행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지 묻고 싶다.
봄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들의 가슴도 겨울을 지나 뜨거운 여름처럼 정겹게 뜨거워지길 기대해 본다.

Column

우리는 성평등한 세상을 원한다



정승희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3.8세계여성의 날' 들어보셨죠?"
"아! 그거 부녀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2월 이주인권교육에서 만난 여성들의 답변이다.

의외로 아시아의 여러 국가 특히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서는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들에게 삼과 축화로 여성들이 귀한 존재임을 인식시키고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며 살아 온 경력이 있다.

의외로 한국에서 나고 자란 여성들보다 이주배경을 가진 여성들이 잘 알고 있고 생활 속에서 누려왔던 '여성의 권리'로서의 여성의 날이라는 반응이다.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만5천여 여성노동자들이 뉴욕의 러거즈 광장에서 모여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 것이 그 기원을 두고 있다. 1908년 여성의 삶이란, 여성노동자들의 삶이란 가부장적 제도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취약했다. 조선에서의 여성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굶지 않기 위해 일 했지만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받아야 했던 여성노동자들이 권리(우리에 빵과 장미 - 생존권, 참정권)를 요구하며 한 대규모 시위였기 때문에 1910년 각 국의 여성 지도자들은 이날을 기념하여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기념하기로 결정하였고, 지금까지 세계 각국에서 기념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기념일로 지정하여 축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20년대 초반부터 3.8기념행사가 치러졌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백이 희었다가 해방 후 부활. 1948년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와 과정에서 단절, 1985년에 와서야 다시 계승되었다. 독재에 대한 항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커져가던 1985년 제1회 한국여성

대회가 '민족, 민주, 민중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이라는 주제로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단체들에 의해 개최되었고, 이후 1986년에는 '민주화와 여성생존권'이라는 주제로 2회 한국여성대회 개최되었다. 1987년부터는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의해 매년 3월 8일을 전후해서 개최되며 2년 주기로 서울에서 전국대회와 지역대회를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충북여성연대는 3월 7일 청소년광장에서 '용기의 언어 미투-성평등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2019년 충북여성대회를 개최하였다. 2018년 서지현 검사로부터 시작된 미투 선언은 들들치럼 번졌고 우리 충북지역에서도 '조민기, 청주시립극단, 지방선거의 후보자, 스포츠투트' 등 자신들이 겪었던 아픈 경험과 기억들을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쏟아낸 여성들과 함께 이슈발언, 성평등 디딤돌상, 결집물등을 시상하고 대중놀이, 풍물과 함께 거리행진을 하였다.

'우리 사회 속에 만연한 '여성비하' 발언과 '물카범죄'는 '여 며칠' '승리, 정준영 탄복방'을 통하여 '여성의 성적 대상화'와 죄의식 없는 성범죄 논의로 뜨겁다. 한류로 인기와 경제적 이득을 추구했지만 '여성도 인격적 존재'라는 의식이 없는 성의식을 볼 수 있다. 전 법무차관의 섹스스캔들, 예비교사들, 명문대 남학생들 또한 SNS를 통해 여학생들을 대해 '성희롱'과 '여성비하'가 만연하고 있다.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 BBC는 정준영 은닉 소식을 접하는 기사에서 "최근 한국에서 '물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2017년 불가 신고만 6000건 이상"이라고 전했다. 미국 CNN은 '켜져 가는 한국 가부장적 제도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취약했다. 조선에서의 여성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굶지 않기 위해 일 했지만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받아야 했던 여성노동자들이 권리(우리에 빵과 장미 - 생존권, 참정권)를 요구하며 한 대규모 시위였기 때문에 1910년 각 국의 여성 지도자들은 이날을 기념하여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기념하기로 결정하였고, 지금까지 세계 각국에서 기념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기념일로 지정하여 축하하고 있다.

성평등이 전제된 민주주의란 언제쯤 가능한 것일까? 여성들은 성평등한 세상을 원하고 조금씩이지만 정책은 바뀌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여성은, 이 땅의 모든 여성은 성평등하고 정의로우며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단결하고 연대하여 세상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1) 중앙일보 2019.03.15 성범죄 스캔들 이은 거짓말 후폭풍... 공든 K팝이 무너진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12031>

현장의 목소리

사회복지사의 포지션은 멀티? 그리고 열정?



최영진
충북지역발달장애인지역회 청주시지부 사무국장

고 험든 번 아웃 증후군이 찾아왔다. 이 유를 꿈꿨던 찾아보고 주말에는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가장 친한 친구들을 해보기도 하고 전 직업을 아르바이트로 해보고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도 다도 물어보았지만 나아지는 것 보다는 점점 기운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결국 침묵부터 다시 시작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여태껏 사회복지사로서 하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시 꼬집어서 일을 해보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여러 가지의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하였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였다.
회계를 시작하면서 사회복지사가 왜 회계를 하고 있어야 하지?
운전을 하면서도 사회복지사가 왜 운전을 하고 있어야 하지?
밥을 하면서도 사회복지사가 왜 밥을 하고 있어야 하지? 라는 의구심만 한가지 가지고 일을 하면서 사회 초년생인 막 들어온 사회복지사를 지켜보다 보니 여태껏 내려오는 업무상 관례

로 인하여 이렇게 유지가 된것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한번 들게 되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로 4년간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요즘 사회복지사들은 열정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요즘 사회복지사들은 여러 가지 일을 잘 하지 못한다. 고로 소위 말하는 멀티가 안된다는 소리다.
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만 열정이 필요하고 멀티가 필요한 것일까? 같은 전문직종에 일하는 의사, 변호사, 간호사, 공인중개사 등의 직업들만 전문직종이고 사회복지사는 말 그대로 열정이 있고 멀티가 되어야 할 수 있는 직종인가?
그렇게 요구가 되는 부분은 그만큼의 지원과 직업에 대한 존엄성을 지켜줘야지만 이루어지는 당연한 원리인데 10이라는 동전을 주고 100이라는 음료를 사오라고 하면 어떤 직종의 사람이 그 미션을 성공할 수 있었는가? 사회복지사는 그럴 해야 한다는 선입견과 트렌드에 맞지않는 관례로 인하여 이제 막 첫걸음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포기와 직업군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아지지 않았는가 싶다.
사회복지사의 입사지원도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
지원조건이 1번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고 2번이 1종보통 운전면허증이 다.
사회복지사를 뽑는데 당연히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2번째 조건은 운전면허증 여부만 이해가 안되었다.
복지관처럼 큰 시설은 당연하듯이 자격증(사무, 운전, 조리사, 시설 등) 인력구성을 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시설이나 단체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성은 어디가고 어떤일이든 다해야하는 소위 맥가이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많이 되는건가 싶다.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가장 유명한 직종 1위가 자살 1위의 직업군이 되고 이름은 화려하나 실체는 전문성이 없는 직업이었던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들의 현장에서 당연하다면 관례를 깨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전문가다운 가치를 받을 수 있다면 현재 사회복지사들과 앞으로 선택을 할 예비 사회복지사들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환경이 개선이 되기를 기원한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무로 법률홍담터 사업 안내

법률홍담터제도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인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안전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 수입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대상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 받을수 있는 분야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진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

법률서비스 제공

원만한 변호사(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 간: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 이메일: wma7259@naver.com
사무실: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홍담터

시 간: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 이메일: wma7259@naver.com
사무실: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홍담터

법무부 · 충청북도 ·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달의 법률상식



원명안 변호사

Q. 저는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최근 집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일부가 훼손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화재로 인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나요?

A. 민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

임차목적물의 화재 손해배상책임

되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개시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점유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전적으로 관리해 사용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에는 화재 등 임대차 목적물에서 발생한 위원은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화재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안과 같이 화재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은 임차건물에 대한 보존과 관리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화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인사동정

백수현 청주노인종합복지관 7대 관장 취임



청주시는 4일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청주시 노인장애인 관과 관계자를 비롯한 내빈과 이용 어르신, 천주교 법안 산하 사회복지 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장 취임식을 가졌다.

제7대 관장으로 취임한 백수현 사도요한 신부는 "노인 공경하기를 부모 모시듯 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형제 대하듯 하라는 관훈을 마음에 새기며 복지관을 찾아주시는 어르신들을 성심성의껏 모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역사회봉사단

다사랑회 "배움의 즐거움 느껴보세요"

어르신 한글·한자 교육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다사랑회(회장 김정숙, 이하 다사랑회)는 지난 2월 16일 청주시 우암동 평화상가 새로운교회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글과 한자 교육을 하였다.

다사랑회는 2013년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김정숙 회장은 "매주 활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배움에 즐거움을 느끼시는 대상자분들이 삶의 원동력이 되며, 앞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



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cpswww@chol.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복지정보 제공

[KT&G복지재단]2019년 상사편의의료복지원 (아동) 신청안내

- 신청기간 : 매월 1일 ~ 20일, 연중상시 진행
- 신청대상 :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만 18세 이하의 저소득(차상위, 수급, 일반저소득) 아동·청소년
- 지원내용 : 치료비·수술비·재활치료비·보장구 구입 등 의료에 관해 병명 제한 없음. (단, 간병비 제외)
- 지원금액 : KT&G 임직원 모금을 통해 최소보장지원금 300만원 ~ 최대 500만원 지원
- 선정발표 : 매월 마지막주 중 발표
- 신청방법 : 매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연 신청 - 온라인 사연신청 : 재단홈페이지(www.ktngwelfare.org) > 사업안내 > 인터넷복지사업 > 상사편의의료복지지원사업 > 사업안내 웹 페이지 하단의 [의료복지지원 신청] 버튼 클릭
- 참고 : http://www.welfare.net

■ 참고 : http://www.kidsfuture.or.kr

[한국의료지원재단]저소득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전자업계 중소기업 전·현직 근로자로 근무 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 -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 포함(산재승인 여부 무관)
- 지원기준 :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를 우선지원(4인가구 기준 월소득 4,614,000원 이하)
- 지원내용 : - 치료비(간병비 포함)지원 - 재활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약제비 지원 -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생활비 지원(생활비 단독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입원,통원하는 의료기관 사 의뢰서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
- 문의사항 : 한국의료지원재단 : 02-6212-9753, 02-6212-9755
- 참고 : http://support.komaf12.org

* 최근 1년 이내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 사업에 선정된 대상자도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정형신발 및 인솔 제작/구입비 - 지원 금액 : 1인 최대 50만원 한도 - 지원 인원 : 10명 - 지원 기간 : 최대 6개월 - 제작 업체 : 지역 내 정형신발 및 인솔 제작이 가능한 업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업체)
- 신청방법 :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개인신청 불가 / 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등
- 신청요청 - 신청서+제출서류 1부로 묶어서 PDF로 제출 요청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알리미에서 다운
- 지원 결과 및 발표 : 2019년 4월 중(개발 연락 및 신청기관 선정공문 발송)
- 지원 및 사례관리 : 2019년 5월 ~ 10월
- 참고 : http://www.welfare.net

[아이들과 미래재단]2019년도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러브아이'대상자 모집

- 지원내용 : 고액의 의료비로 적절치 못한 치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업
- 접수기간 : 2019년 2월 ~ 11월(상시접수)
- 지원대상 :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48명(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지원금액 : 1인 최대 3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 사례관리 가능한 기관을 통해 신청서류 메일 제출 *개인신청 불가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병원, 학교 등)
- 신청서류 : 공문1부, 사업신청서1부, 지원신청서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 의료적 상황 확인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아동기준)가족관계 증명서 1부, 가구 소득유형에 따른 증빙서류(해당자) *신청서 및 제안서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우리재단]2019 효성 장애어린이 의료재할 가족지원사업 안내

- 장애어린이 지원 - 지원항목 : 재활치료비(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비급여 치료) - 신청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어린이(만 5세 미만 미등록 가능)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200만원
- 신청시기 : 2019년 3월 11일(월)~4월 30일(화)
- 지원기간 : 2019년 6월~2020년 3월
- 비장애형제·자매 지원 - 지원항목 : 심리치료비, 교육비 - 신청대상 : 장애어린이를 형제·자매로 둔 만 18세 미만의 비장애형제·자매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50만원
- 신청시기 : 2019년 3월 11일(월)~4월 30일(화)
- 지원기간 : 2019년 6월~2020년 3월

[우리재단]2019 SPC 장애어린이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19년 3월 ~ 11월
- 신청기간 : 2019년 03월 11일(월) ~ 2019년 04월 12일(금)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어린이

[KT&G복지재단]2019 따뜻한 동화 사회복지현장 실천하기 공모전

- 공모기간 : 2019년 3월 12일(화)~4월 21일(일), 약 6주간
- 공모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 (참가자 제한 없음)
- 공모내용 : - 사회복지중사로서 겪은 희망의 사회복지현장 체험수기 - 자원봉사자로서 겪은 나눔의 자원봉사 현장 체험수기
- 공모양식 : 지정된 양식 사용
- KT&G복지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알림센터>(공지사항<소식> 공모전 게시판(공모전 포스터 하단)공모전 접수하기
- 수상발표 : 2019년 5월 2주 주 예정
- 문의 : KT&G 복지재단 사무국 nice@ktngwelfare.org
- 참고 : http://www.welfare.net

2019 청주복지 시정연구논문 공모전

참가신청 연구계획서 제출 2019. 5. 24.(금) 18:00까지

공모주제
민선 7기 청주시 시정목표 "더불어 행복한 맞춤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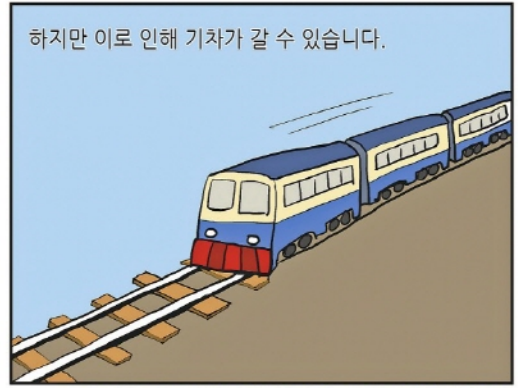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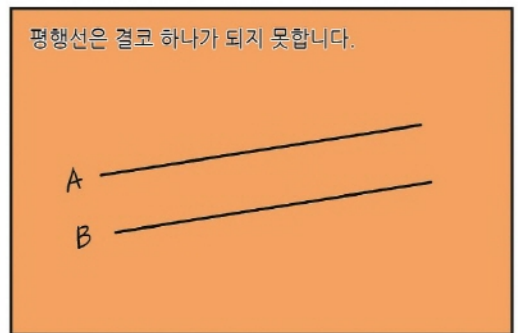
시상내용
최우수상(1인) 시상상 및 상금 3백만원
우수상(2인) 시상상 및 상금 2백만원
장려상(2인) 시상상 및 상금 1백만원

응모자격 및 형태
청주시 거주자
청주시 소재 대학(원)생
직공 근로자
* 단독 또는 공동연구(1인 1단체)

접수 및 문의
응모기간 : 참가신청·연구계획서 제출 2019. 5. 24.(금) 18:00까지
접 수 : 이메일(cjwf_study@hanmail.net)로 제출 후 전화 확인
문 의 : 청주복지재단 연구개발팀 043-222-383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cjwf.net) 확인

복/지/만/평

평행선



자원 봉사자 모집

- ▶ 멘토링 자원봉사자 모집
관리센터 : 충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활동기간 : 3.1 ~ 4.30
전화번호 : 043-857-5960
- ▶ 도시락 배달 봉사
관리센터 :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 3.1 ~ 4.30
전화번호 : 043-236-3600
- ▶ 요리교실 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 꽃동네장애인공동생활가정 쉼의집
활동기간 : 3.1 ~ 4.30
전화번호 : 043-930-0292
- ▶ 어르신 한글교실 재능기부 봉사
관리센터 : 청주서원노인복지관
활동기간 : 3.1 ~ 4.30

- 전화번호 : 043-238-3786
- ▶ 사회복지 사무보조
관리센터 : 청주YWCA
활동기간 : 3.1 ~ 4.30
전화번호 : 043-265-3702
- ▶ 녹음도서 모니터링 봉사
관리센터 : 무지개도서관
활동기간 : 3.1 ~ 4.30
전화번호 : 043-237-5544
- ▶ 미용봉사
관리센터 : 실버돌요양원
활동기간 : 3.1 ~ 4.30
전화번호 : 043-288-5020
- ▶ 장남감도서관 정리
관리센터 : 충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활동기간 : 3.1 ~ 4.30
전화번호 : 043-857-5960
 - ▶ 도서관 도서 정리
관리센터 : 충청북도중앙도서관
활동기간 : 3.1 ~ 4.30
전화번호 : 043-267-4590
 - ▶ 중등부 영어, 수학 지도
관리센터 : 결희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 3.1 ~ 4.30
전화번호 : 043-296-9333
-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자료출처 : www.vms.or.kr